

한돈자조금, 다동이 응원 ‘행복 충전 프로젝트’ 성료

다자녀 100가정 응원 ESG 캠페인 성공적 마무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는 저출산 극복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ESG 캠페인 ‘한돈과 함께하는 다동이네 행복 충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영화관에서 열린 특별 초청행

사에는 캠페인에 선정된 다자녀 100가정 가운데 30가정이 참석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방송인 정종철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8남매 가족을 대표로 한 한돈케이크 전달식으로 시작됐다. 이어 참여 가족들의 일상과 인터뷰를 담은 ‘다동이네

행복 충전 이야기’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또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 응원강연에서는 가족의 가치와 행복,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큰 공감을 얻었다. 참석자들에게는 ‘한도니’ 캐릭터 인형과 한돈 굿즈를 증정해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한돈과 함께하는 다동이네 행복 충전 프로젝트’는 다산과 복의 상징인 돼지의 의미를 담아 다자녀 가정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한돈자조금의 ESG 캠페인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선정된 100가정에는 한돈케이크가 전달되며, 이번 초청행사는 캠페인의 피날레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한돈자조금은 행사 이후에도 선정된 100가정을 대상으로 추석과 연말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돈 신선육 선물세트를 추가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응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기홍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다자녀 가족이 만들어가는 웃음과 행복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큰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인 한돈을 매개로 가족의 가치와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하고,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한돈자조금이 7월 4일 서울 마포구 인근 영화관에서 개최한 ESG 캠페인 ‘한돈과 함께하는 다동이네 행복 충전 프로젝트’ 특별 초청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폭염·장마철 집중호우 사전대비 당부

축산농가 사전점검 완료…위험요인 확인 43개소에 보완 조치

경기도가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기상재해 발생에 대비해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도는 여름철 축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축산재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시군별 축산농가 종합협가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집중호우 전후 축산농가 관리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전 준비를 농가에 당부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호우 전후에는 축대 보수와 배수로 정리, 비바람으로 인한 누전 등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

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청결 유지와 전기 소독, 사전 백신접종과 함께 물웅덩이 제거 및 방충망 설치 등 해충방제 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전기 화재와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



▲경기도청 제공

해 파손된 플러그와 전선 피복 상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

이밖에도 계약 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상발전기 및 소화기 비치, 전기안전 진단 등을 진행해야 한다.

고온기에 취약한 돼지, 닭 등의 축종은 가축분뇨 부패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따른 질병과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해 축사 청결을 철저히 유지하고, 사육밀도를 기존 대비 10% 이하로 조절하는 등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한다.

폭염 시에는 축사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환기 및 냉풍기 가동으로 축사 내 온도를

낮춰야 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해 폭염으로 도내 가축 33만6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약 50억 원의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가축은 폭염에 민감한 만큼 환경 관리와 함께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저지대와 노후 축사를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된 43개소에 대해 배수로 정비, 축대·지붕 보수, 노후 전기 설비 교체 등 사전 보강 조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여름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해 축산농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데이터로 키우는 K-한돈… 현장 전문가 한자리

‘돼지 등급판정 기계 데이터 활용 전문가 협의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지난 30일 돼지 등급판정 기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국내 한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비롯해 한국종축개량협회, 대전충남양돈농협, 논산계룡축협, 농협목우촌, 팜스코 등 생산 및 유통 현장에서 관련 데이터를 실제 활용 중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활용 사례와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생산 단계에서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돼지개량네트워킹구축사업’을 통해 등급판정 기계 데이터를 종돈 개량에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팜스코는 모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량 지표로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며 데이터 기반 유전적 개량과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유통 단계에서는 대전충남양돈농협이 기계 분석 데이터인 ‘삼겹내지방비율’을 활용해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브랜드 ‘셀렉티드 포크(Selected Pork)’

에 원료육을 납품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데이터 기반 상품 차별화 사례로 평가됐다.

협의회에서는 농가별 생산 특성 분석 및 환류 체계를 통해 자발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과지방 삼겹살’을 사전에 선별해 가공용으로 분리 유통하는 등 소비자 수요에 맞춘 유통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기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품질 관리

가 소비자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한돈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등급판정 기계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겠다”며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해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지난 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시 본원에서 진행된 ‘돼지 등급판정 기계 데이터 활용 전문가 협의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기철헤린지로 이웃사랑 실천

전기로 실천한 탄소중립·나눔으로 이어진 따뜻한 온기 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한 ‘2026년 ESG 임·직원 ‘감탄’ 전기철헤린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을 함께 실현했다.

이번 철헤린지는 ‘한걸음 이웃에게 감동을, 또 한걸음 지구에게 탄소감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26.5.6.부터 6.4.까지 30일간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의 일상 속 전기 사용을 통해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기 프로그램을 넘어, 전기철헤린지에 참여하여 목표달성 성과로 온누

리상품권을 제공받은 임·직원 중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부 참여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온누리상품권을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에 7월3일에 전달했다.

위생방역본부가 이번에 제공한 기부금은 세종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세종시 중충동종합복지관에 마련된 푸드마켓이 7월7일 개소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환 본부장은 “이번 전기철헤린지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환경보전과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한 뜻깊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방역본부는 이번 상반기 철헤린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에도 ‘ESG 전기철헤린지’를 추진해 임·직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상 속 친환경·나눔 실천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